

◇ 50년간의 침묵 Fifty Years of Silence

〈1994년/ 호주/ 네드 랜더/ 컬러/ 58분〉

'50년간의 침묵'은 독일, 인도네시아, 호주, 한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삶을 교차시킨 작품이다. 이 영화의 주인공 'Jan Ruff-O'Herne'은 도쿄에서 열린 국제 공청회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한다. 이 자리에서 그녀가 밝힌 사실들은 전 세계에 보도되고, Jan은 계속해서 홀랜드에서 다른 네덜란드 여성들과 만나게 된다. 네덜란드 여성들은 Jan의 용기있는 행동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여론화하기로 결심한다.

이 영화의 감독 '네드 랜더'는 1956년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태어나 멜버른에서 자랐다. 그는 1977년 다큐멘터리 <Dirt Chep>(1979년)를 제작하였고, 1980년 City Pictures를 세웠다.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과 시나리오 작업에까지 참여한 영화 <Wrong Side of the Road>로 1981년 AFI(미국영화협회)의 주리상을 비롯하여 최우수 영화상, 최우수 영화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. 1987년에는 <Paining The Town>으로 그해 AFI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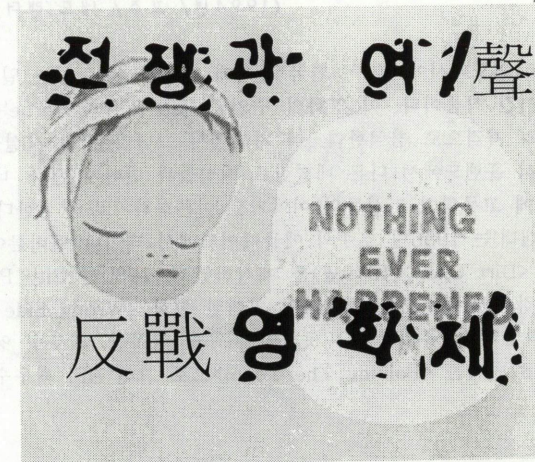
◇ 이방의 여인들 The Women Outside

〈1995년/ 미국/ J. T. 다카기/ 컬러/ 60분〉

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한다. '성매매를 하는'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, 나랑은 먼 얘기라고.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라고. 문제가 있겠지만, 어쨌든, 나랑은 상관없다고. 그래서 그럴까? "이방의 여인들". 처음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, 아이러니하게도 저 글귀가 이 영화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사실 우리는,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,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. 내 바로 옆에서 '성매매'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, 눈과 귀를 억지로 틀어막고, 나는 잘 모른다고 끝까지 우겨댄다. 그런 우리에게 이 영화는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온다. 그리고 이야기한다. 성매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, 가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던 소박한 꿈들, 저당잡혀야 했던 최소한의 자유. 이 모든 것은 결코 '이방'의 것들이 아니라고. 그분들은 결코 이방인이 아니라고.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에서,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.

...2003년 4월.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.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의해 피해받고 있다.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가기만 한다. 여전히 나와는 다른 얘기라고 고개 젓는 우리에게, 이 영화는 또다시 나직하게 속삭인다. 그녀들은 결코, '이방의 여인들'이 아니라고. "I'm not that kind of the girl"이 아니라고.

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/破/만/波
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



50년간의 침묵

-Fifty Years of Silence

이방의 여인들

-The Women Outside

언제 : 2003년 4월 11일 오후 5시

어디서 : 광복관 111호